

**2024년도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미국) 보고서**



2024년도 7월

전주시의회

# 목 차

<b>I. 공무국외출장 개요</b> .....	<b>1</b>
1. 출장목적 및 추진 방향	
2. 출장 개요	
<b>II.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b> .....	<b>6</b>
1. 공무국외출장 사전스터디	
2. 방문국가 사전 자료 조사	
<b>III. 연구과제별 주요 출장 내용</b> .....	<b>12</b>
1. 영화 융복합산업 혁신 사례지 방문	
2. 야간관광 혁신 명소 방문	
3. 농업 혁신 선진지 견학	
4. 혁신적인 도시재생&마이스산업 우수사례 견학	
5. 혁신 공공외교 수립	
<b>IV. 정책적 시사점</b> .....	<b>33</b>
<b>V. 의원 개별 출장보고서</b> .....	<b>42</b>
<b>VI.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b> .....	<b>94</b>

# I 공무국외출장 개요

## 1 출장목적 및 추진 방향

### □ 출장목적

- 글로벌 영화영상 시설과 기업을 벤치마킹해 영화영상 산업 전반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향후 전주의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우리 시 도입 과제 도출
- 건물 상층부를 활용한 도시야경 특화전망대 방문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버스 활용 전문 프로그램 등을 체험함으로써 야간관광 특화 도시 전주시의 콘텐츠 확충 및 발전 방향 모색
- 성공적인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해외 컨벤션센터 및 문화시설 참관을 통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 해외 민간기업, 재외동포 단체와의 생활체육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협력 활동 강화

### □ 추진 방향

- 미국의 야간관광, 영화영상, 마이스 등의 다양한 정책 현장을 밀도 있게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 문화관광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前)사전 충분한 사례조사 및 교육 진행 → 中)폭 넓은 정책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출장 추진 → 後)공무국외출장 시민보고회, 내실 있는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공무국외출장 운영

## 2 출장 개요

### □ 일반 개요

- (출장국가) 미국 3개 지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출장기간) 2024. 5. 25. ~ 6. 5.(8박 11일)
- (출장자) 총 17인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1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단장, 문화경제위원장
2		이성국	부단장
3		김동헌	운영위원장
4		김윤철	
5		박혜숙	
6		온혜정	
7		전윤미	
8		장병익	
9	행정위원회	정섬길	행정위원장
10		최주만	
11		남관우	
12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13	의회사무국	김인규	미디어홍보팀
14		최용재	의정팀
15		조은정	입법정책1팀
16	전주시	변동현	문화정책과
17		송재성	농축산정책과

□ 출장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차	방문지	주요 일정	벤치마킹
1일 (5/25)		• 인천공항 → 뉴욕 이동	
2일 (5/26)	뉴욕	• 고층 상층부(원월드트레이드센터)를 활용한 도시경관 • 맛집, 건축물 활용한 특화거리,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 - 베슬~하이라인~첼시마켓~덤보 • 타임스퀘어 옥외 LED 등 야간경관 벤치마킹	도시농업
3일 (5/27)		• 아쿠아포닉 농업 활용한 오코농장 현장견학 • The Ride Bus 시티투어 버스 탑승 및 체험 • 뉴욕의 초록심장 센트럴파크 견학 • 청소년 인재 양성 사례 USLEO(마주범죄예방방법연대) 간담회 • 동부지역 여행사 관계자 면담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류형관광 K-콘텐츠 도시재생
4일 (5/28)	라스베 이거스	• 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 →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 공공아트 <세븐매직마운틴스> 견학 • 야간관광자원 체험 및 견학(거리공연, 분수쇼 등)	야간관광
5일 (5/29)		• <레드락캐년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제도 벤치마킹 • LED를 활용한 기술의 혁신 <스피어> 공연장 방문 • 카지노와 리조트 이전으로 쇠퇴하던 다운타운 도시재생 사례지 방문-다운타운아트팩토리, 코카콜라스토어 등	자원봉사 도시재생
6일 (5/30)	로스앤 젤레스	• 라스베이거스 → 로스앤젤레스로 이동 • 경기장의 활용법 LA다저스 스타디움 방문 • 재미대한축구협회 생활체육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영화영상 스타트업
7일 (5/31)		• 어바인시의회 방문 및 태미김 시의원 예방 • 영화 콘텐츠 활용한 체험, 유니버셜 스튜디오 방문	국제교류 영화영상
8일 (6/1)		• 로스앤젤레스 융복합 관광산업 성공 사례지 방문 - 돌비극장, 차이니스극장, 명성의 거리, 레이크할리우드파크 • 영화와 천문대를 결합한 그리피스 천문대 방문	영화영상 야간관광
9일 (6/2)		• 문화 콘텐츠 관련 더브로드미술관, 엔젤스플라이트 견학 • 농민과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파머스마켓 방문 • 공연장이자 스포츠 경기장인 소파이 스타디움 방문 • 로스앤젤레스 → 인천공항 이동	콘 텐 츠 도시농업 스 포 츠
10일 11일		• 인천공항 → 전주 이동	

## Ⅱ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 1 사전스터디

-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준비 기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자 사전 간담회,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정책 사례 연구를 통한 향후 시책 반영 연계 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1. 공무국외출장 테마 관련 부서 간담회

- 일 시 : 2023. 4. 22.(월) 14:00
- 장 소 : 전주시소통협력센터 2층
- 참석자 : 30여 명
- 내 용 : ① 전주 영화영상산업 발전 방향 공유(문화정책과장 발제)
  - 전주시 영상문화역량과 영화제작 시스템에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더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산업 도시로 육성②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계획 공유(관광산업과장 발제)
  - 단순 체류의 경유형 관광 행태가 두드러짐에 따라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야간경관 명소 조성



## 2.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 일 시 : 2024. 5. 3.(금) 10:30
- 장 소 :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
- 참석자 : 피터유(유성환) 커뮤니케이션스튜디오 대표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외 30명
- 내 용 : ① 영화영상클러스터 중장기 조성 방안  
→ 고랑동 산업단지 내 클러스터 조성 및 돔 스튜디오 필요  
VR 콘텐츠, 버추얼스튜디오 조성 및 활성화 필요  
② 글로벌 수준의 영화영상 제작 인센티브 필요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등 특구 지정 통한 세제 혜택 필요  
③ 기타 과제 → 영화영상 자문관 제도 운용, 영상 콘텐츠 IP 기획 및 개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전용 기금 펀드 조성 등



## 3. 공무국외출장 사전설명회

- 일 시 : 2024. 5. 20.(월) 14:00
- 장 소 :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
- 내 용 : 테마 설명(관광, 문화, 농업 분야의 글로벌 산업혁신)  
주요 출장 일정 및 업무협약 등 행사 안내  
안전관리 계획 및 유행성 예방 계획 등 공유

## 2 방문국가 사전 자료 조사

###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USA) 일반

-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은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공화국으로, 50개의 주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음.
- 면적은 약 9,833,520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이며 한반도의 약 45배에 달하고,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3억 4천만 명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임.(인종 구성: 백인 61.6%, 흑인 12.4%, 아시아계 6.0%, 원주민 1.3%, 다인종 10.2%, 기타 8.4%)



구분	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면적	783.8km <sup>2</sup>	367.36 km <sup>2</sup>	1,302.06km <sup>2</sup>
인구	833.6만	65.63만	4,015,940명
주	뉴욕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특징	경제 문화 중심지	엔터테인먼트 도시	엔터테인먼트, 교육중심지

1)외교부\_미국\_약황정보(24.04.16),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3](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3)

## 2. 역사

- 1607년 영국은 제임스타운에 첫 식민지를 세웠고, 18세기에 13개 식민지가 형성되었으나 1776년 독립 선언으로 미국이 탄생했음. 1789년 헌법이 발효되었고, 19세기 서부 개척과 남북 전쟁을 거치며 영토를 확장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음.
-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 참전하며 영향력을 확대했고, 대공황과 냉전을 겪었음. 흑인 민권 운동으로 인종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었으며, 현대에는 테러와의 전쟁, 금융 위기,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3. 정치

- 미국 정치의 역사는 1776년 독립선언서로 시작되어, 1787년 헌법 제정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음. 민주당과 공화당이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정치 무대를 지배해 왔으며, 특히,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2020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취임은 대립을 더욱 부각함.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라고 평가받는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되는데, 임기가 6년인 상원이 100석, 임기가 2년인 하원이 435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올해 11월 치러지는 하원 구성을 살펴보면, 공화당이 218명, 민주당이 213명, 공석이 4석으로 다수당은 공화당임. 반면, 상원에는 민주당이 48명, 공화당이 49명, 무소속 3명의 의원이 있는데, 무소속들이 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

#### 4. 경제

- 2023년 국내총생산(GDP)은 26조 9,496억 달러, 1인당 GDP는 80,412 달러로 높은 생활 수준을 반영하며, 경제성장률은 2.5%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 구조를 보면, 서비스 산업이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정보 기술,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가 두드러짐. 제조업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항공우주, 화학제품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 부문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지만, 여전히 주요한 식량 생산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5. 관광정책

- 국가 경제의 활성화, 문화 교류의 촉진, 지속 가능한 관광의 추구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었으며, 주요 국가와의 항공 협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미국 뉴욕관광청이 12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누적 방문객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방문객 수의 약 93%<sup>2)</sup>에 달하는 약 6,200만명에 달하며 방문객 소비액도 크게 늘어 480억 달러로 예상됨. 이는 총 740억 달러(한화 약 96조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해 뉴욕시 내 약 9%에 해당하는 3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함.

2) <https://www.ttlnews.com/article/trip/15175>

## 6. 미국 약황<sup>3)</sup>

### □ 일반사항

- 수도 : 워싱턴(Washington, D.C.)
- 인 구 : 약 3억 3,329만명('22)
- 면 적 : 983만km<sup>2</sup>(한반도의 약 45배)
- 인구구성 : 백인(61.6%), 흑인(12.4%), 아시아계(6.0%), 원주민(1.3%), 다인종(10.2%), 기타(8.4%)  
\* Hispanic : 전체 인구의 18.7%
- 종교 : 개신교(40%), 가톨릭(21%), 몰몬(2%), 유태교(2%), 이슬람(1%), 무교/기타(34%)('22)

###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의회구성 : 상하 양원제
  - 상 원 : 100석(임기 6년)
  - 하 원 : 435석(임기 2년)
- 주요정당 : 공화당, 민주당
- 정부 주요인사
  - 대통령 : 조 바이든(Joe Biden)
  - 부통령 :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 국무장관 :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 □ 경제현황 \*추정치

- 국내총생산(GDP) : 25조 4,627억불('22)
- 1인당 GDP : 76,399불('22)
- 경제성장률(GDP기준) : 2.1%('22)
- 교역규모('22)
  - 상품수출 : 2조 856억불
  - 상품수입 : 3조 2,773억불
-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 : 552.8억불('22)\*

###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882.5.22.(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949.1.1.(미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승인)
-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49.3.25. 설치), 9개 총영사관 및 4개 출장소
-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22)
  - 수출 : 1,098억불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산업용 기계 등
  - 수입 : 818억불
    - 원유, 반도체 제조용 장비, LPG 등

### □ 재외국민 현황

-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21) : 약 263만명

### □ 인적교류 현황 ('22)

- 방미 : 약 91.9만명
- 방한 : 약 54.4만명

### □ 북한과의 관계

- 2018.6.12.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 2019.2.27.-28.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하노이)
- 2019.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 □ 주요인사 교류현황

#### • 정상급

- '18.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 '18.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18.11월 G20 계기 정상회담(부에노스아이레스)
- '19. 4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 '19. 6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 '19.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21.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미
- '21. 9월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22.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 '22. 9월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22. 9월 해리스 부통령 방한
- '22.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프놈펜)
- '23.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 '23. 8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 '23. 9월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 '23.11월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샌프란시스코) 참석

#### • 기 타

- '19. 2월 중동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바르샤바)
- '19. 3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워싱턴)
- '20. 1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샌프란시스코)
- '20. 2월 문헌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약속회담
- '20.11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워싱턴)
- '21. 3월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제5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 '21. 5월 G7 외교 개발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런던)
- '21.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런던)
- '21. 9월 정의용 외교부장관 방미(유엔총회)
- '21.10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외교장관 약속 회담(파리)
- '21.10월 G20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로마)
- '21.12월 G7 외교·개발장관 확대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동(리버풀)
- '22. 2월 정의용 외교부장관 방미(호놀룰루)
- '22. 4월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외교장관 회동(브뤼셀)
- '22. 6월 박진 외교부장관 방미
- '22.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동(마드리드)
- '22. 8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 약속회담(프놈펜)
- '23. 2월 박진 외교부장관 방미(뉴욕, 워싱턴)
- '23. 5월 G7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히로시마)
- '23. 9월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약속 회의(뉴욕)
- '23.11월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 '23.11월 APEC 각료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샌프란시스코)

3)외교부\_미국\_약황정보(24.07.),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3](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3)

### Ⅲ 연구과제별 주요 출장 내용

#### 1. 영화 융복합산업 혁신 사례지 방문

(1) 할리우드 영화 관련 시설, 명성의 거리와 돌비극장, 차이나이즈 극장

○ (소재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주요 시설) 돌비극장, 차이나이즈극장, 명성의 거리, 레이크할리우드파크

○ 미국 영화산업의 메카인 LA의 영화 관련 시설 벤치마킹.

○ 매년 3월 세계적인 영화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극장, 1927년에 세워진 중국풍 외관의 TCL차이나이즈극장은 최신 영화의 프리미어 행사 등이 열리는 장소임.

○ 찰리 채플린, 톰 크루즈 등 스타의 이름이 새겨진 명성의 거리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자 할리우드 사인과 함께 할리우드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 스튜디오&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Universal Studios)

○ (면적) 1.7km<sup>2</sup>

○ (소재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역사) 미국 6대 메이저의 하나인 유니버설 스튜디오(1909년 설립)  
는 영화 촬영 현장을 세계 최초로 상업적 테마파크로 개발<sup>4)</sup>

○ (연간 방문객) 840만 명(2022년 기준)

○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 촬영 스튜디오 : <쥬스>, <백 투 더 퓨처> 등 영화 및 TV 프로그램이 촬영된 실제 세트 및 해리포터 시리즈를 테마로 한 호그와트 성, 호그스미드 마을 관람
- 놀이기구 : 영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3D 시뮬레이터 놀이기구 및 <심슨가족>을 테마로 한 3D 시뮬레이터 놀이기구
- 워터월드 쇼 : 1995년 영화 <Waterworld>를 기반으로 한 공연, 물로 가득 찬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극적인 액션과 스텐트가 특징



4)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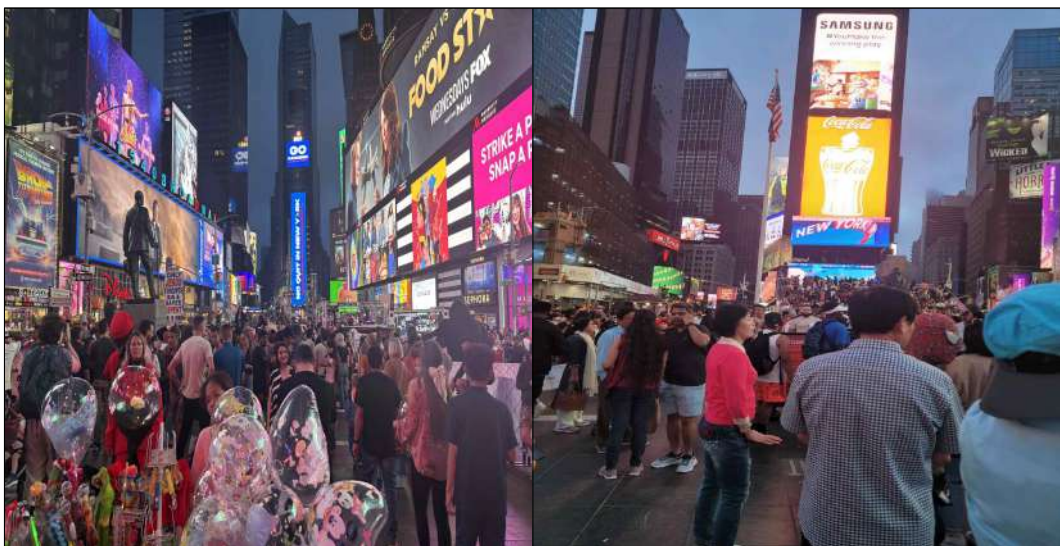
## 2 야간관광 혁신 명소 방문

### (1)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

- (소재지) 뉴욕 맨해튼(브로드웨이와 7번가가 만나는 지점)
- (역사) 1980년대까지 성매매 산업의 중심지였던 브로드웨이는 뉴욕시의 대대적인 단속과 타임스퀘어 일대의 재개발로 인해 뮤지컬과 연극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1904년에 뉴욕 타임스 신문사가 이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이름이 “롱에이커 스퀘어(Longacre Square)”에서 “타임스 스퀘어”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보행로 교차로이자 옥외광고 자체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음.

#### - (주요 특징)

- ① **광고판** : 대형 LED 및 네온 광고판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 ② **브로드웨이 극장** : 유명한 극장들이 밀집해 있는 극장 중심지
- ③ **새해맞이 행사** : 매년 12월 31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 진행
- ④ **관광 명소** : 마담 투소 박물관(Madame Tussauds), M&M's 월드, 디즈니 스토어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쇼핑 장소가 있음.
- ⑤ **타임스퀘어 플라자** : 2009년부터 실시된 보행자 전용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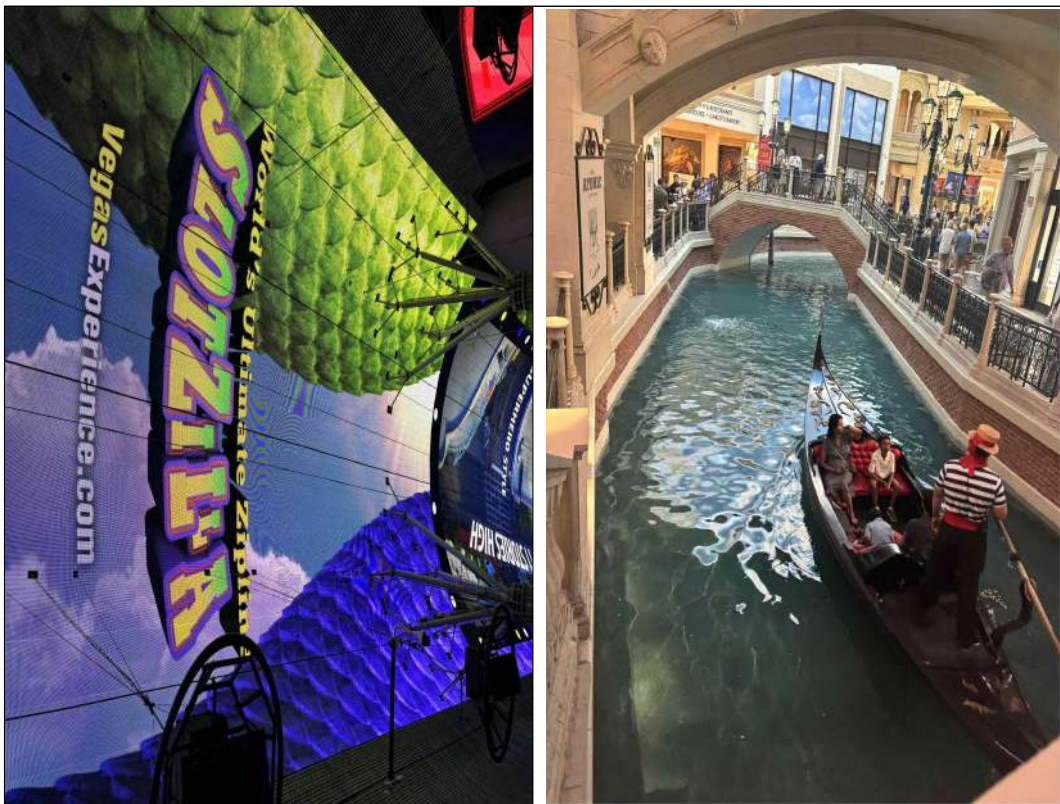


## (2) 라스베이거스 프레몬트 거리의 전구쇼, 분수쇼 등 야간관광자원

○ (종류)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가에서 진행되는 프레몬트 거리의 전구쇼,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 각종 길거리 공연 등

### ○ (주요 특징)

- ① 프레몬트거리 전구쇼 : 370m 거리의 아케이드 천정에 LG의 기술로 제작된 600만 개의 발광다이오드가 빛나는 전구쇼
- ②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 : 화려한 조명, 1,000개가 넘는 시원한 물줄기가 켈리나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에 맞춰 춤추는 분수쇼
- ③ 호텔투어 : 로마제국을 테마로 한 시저스팰리스호텔, 스프링크스와 피라미드로 외관을 장식한 룩소호텔, 2,000마리가 넘는 해양동물 수족관이 있는 만달레이베이호텔, 2분의 1로 축소된 에펠탑과 개선문을 자랑하는 파리 호텔 등, 라스베이거스는 호텔 그 자체가 여행의 테마가 됨.



### (3) 상층부를 활용한 야간관광명소

- (자원) 원 월드 전망대, 브루클린 교 등

- (주요 특징)

① 원 월드 전망대 : 맨해튼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꼭대기에 위치한 유명한 관광 명소로, 102층에 있는 호라이즌 그리드(Horizon Grid)는 뉴욕의 역사와 발전을 다양한 영상과 사진으로 소개하며, 360도 파노라마 뷰 전망대에서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뿐만 아니라 브루클린, 뉴저지, 스테튼 아일랜드까지도 볼 수 있는 360° 주간과 야간의 화려한 전망을 제공함.

② 브루클린 교 : 뉴욕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이며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

③ 허드슨 리버 파크 등 : 허드슨 강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기는 맨해튼의 서쪽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



#### (4) 라이브 공연을 보며 달리는 더 라이드 버스

- (개념) 일반적인 관광버스 투어와는 다르게 쇼와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결합한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뉴욕 투어 버스 프로그램

##### - (주요 특징)

- ① **인터랙티브 시티 투어** : 더 라이드(The Ride)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실시간 공연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투어 중에는 전문 배우들이 거리에서 다양한 라이브 공연을 직접 보며 뉴욕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함.
- ② **특별한 버스 디자인** : 달리는 방향으로 관광객들이 앉는 일반적인 관광버스와 달리, 특수 제작된 더 라이드 버스는 대형 창문을 통해 도시를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③ **차별화된 야간 관광 상품** : 더 라이드의 독특한 포맷은 단순한 시티 투어를 넘어서 뉴욕의 야경을 보다 흥미롭고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저녁 시간대의 투어에서는 버스 내부와 외부에 다양한 조명과 효과를 활용하여, 야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공연의 분위기를 극대화함.



### 3. 농업 혁신 선진지 견학

#### (1) 아쿠아포닉스 농법, 오키팜(oko farm)<sup>5)</sup> 현장견학

○ (소재지 및 규모) 뉴욕 브루클린, 232㎡ 규모

○ (소개) 2013년에 문을 연 오키팜(OKO Farm)은 물고기 양식 (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인 아쿠아포닉스 (Aquaponics)를 채택한 농장임. 나이지리아 출신의 공동창업자 예미 아무(Yemi Amu) 씨가 시 소유의 공터를 빌려 창업한 이 농장은 교육 및 생산형 농장으로, 다양한 채소와 허브를 재배하고, 식물 아래의 양식 수조에서 비단잉어와 메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물고기를 양식하는 도심 농장임.

○ (원리) 아쿠아포닉스(Aquaponics)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식물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식물은 물을 정화하는 폐쇄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으로, 물속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 전환하여 식물에게 영양소를 제공하게 됨.

○ (프로그램) 수경재배 워크숍, 농장투어, 실습훈련 프로그램, 플리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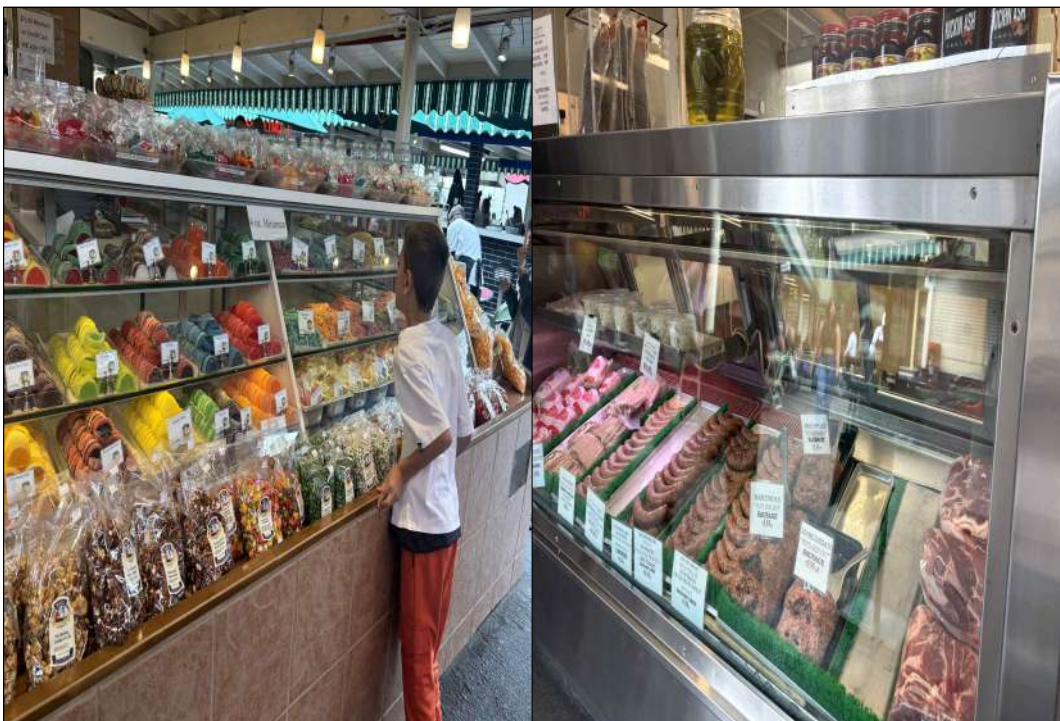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166088?sid=104>

## (2) 농민과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파머스마켓 방문

○ (소재지) 로스앤젤레스의 페어팩스 디스트릭트

○ (역사) 1934년, 대공황 시기에 농부들이 들판에 트럭을 세워 놓고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식료품을 판매한 데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노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더 그로브(The Grove) 쇼핑몰과 인접해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음.

○ (특징) 약 100여 개의 상점과 음식점이 있으며, 각종 신선한 농산물, 수제 제품, 국제적인 음식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전통적인 미국 음식부터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주말마다 라이브 음악 공연, 요리 시연, 어린이 놀이 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음.



#### 4. 혁신적인 도시재생&미스산업 우수사례 견학

##### (1) 맛집, 건축물 활용한 특화거리, 베슬~하이라인~첼시마켓~덤보

○ (소재지) 뉴욕시 맨해튼 일원

○ 베슬(Vessel, TKA) : 뉴욕시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독특한 건축물로, 영국의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이 설계하였음. 뉴욕시의 도시 재개발과 현대화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허드슨 야드는 한때 철도 차량기지였으나,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뉴욕의 새로운 상업, 주거,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였으며, 베슬은 이러한 변화를 시각적으로 대표하는 랜드마크임이자 공공 예술 작품으로의 기능 수행함.



○ (덤보) 도시재생을 통해 과거의 산업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활력을 불어넣은 대표적인 사례인 뉴욕 브루클린의 덤보(DUMBO, 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는

과거 산업지대였으나 1970년대부터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모여들며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낡은 창고와 공장을 고급 주거지와 상업 공간으로 재개발하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음. 현재 덤보는 예술 갤러리, 카페, 고급 레스토랑, 스타트업 사무실이 밀집한 트렌디한 지역으로 변모했으며, 뉴욕의 중요한 문화 및 경제 허브로 자리잡고 있음.

- (첼시마켓) 첼시 마켓은 오레오 쿠키와 리츠 크래커 등을 만드는 나비스코(Nabisco)의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조하여 1997년 문을 연 식료품점이자 복합공간임. 다양한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가게 등이 모여 있어 뉴욕의 다양한 식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으며, 여러 독립 상점과 예술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있어 쇼핑과 문화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음. 특히, 하이라인 공원과 가까워 관광객들이 찾는 뉴욕 대표 관광 명소임.



○ (하이라인) 뉴욕시 맨해튼 서부의 첼시 지역을 지나가는 공원으로, 1934년에 운송용 화물 철도로 건설된 고가 철도를 재활용하여 조성되었음. 1980년대에 들어서는 철도의 사용이 중단되었고, 이후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철로와 주변에 야생 식물이 자라나 자연의 녹지를 형성하게 되었음. 2000년대 초반, 하이라인은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비영리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하이라인 (Friends of the High Line)의 노력으로 보존 및 재개발이 결정되었으며, 유명 건축가와 조경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2006년부터 본격적인 조성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 완공되었음.



## (2) 도시재생과 도시 환경 개선으로 조성된 센트럴파크

○ (소재지)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구

○ (면적) 3.41km<sup>2</sup>

○ (소개) 1858년에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와 칼버트 보가 설계한 센트럴파크는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으로, 당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음.

○ (주요 역할)

① 사회적 재생 : 센트럴파크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도모했으며, 이는 당시 뉴욕시가 직면한 이민자 문제 등 사회적 긴장 완화

② 환경적 재생 : 도시의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며,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당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

③ 경제적 재생 : 센트럴파크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

④ 공공복지 : 공원은 도시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로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 (3) 공연장이자 스포츠 경기장인 소파이 스타디움

-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
- (기공) 2016년 11월 17일 (개장) 2020년 9월 8일
- (홈구단) 로스앤젤레스 램스(NFL, 2020~), 로스앤젤레스 차저스(NFL, 2020~)
- (준공비) 49억 6,300만 달러(한화 약 6조 5,770억원)
- (건설 배경) NFL(미국 미식축구리그) 팀인 로스앤젤레스 램스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로스앤젤레스 차저스가 샌디에이고에서 이전해 오면서 새로운 스타디움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공간 특성) 수용인원은 약 70,000명이지만, 최대 100,0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내부는 VIP 라운지, 스위트룸 등을 갖추고 있으며, 반투명 ETFE(에틸렌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로 만든 지붕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날씨로부터 관중을 보호
- (운영 특성) 2011년 설립된 미국 온라인전문금융기업 소파이는 20년 간의 명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sup>6)</sup> 매년 3000만 달러, 총 6억 달러(8344억원)을 건네는 계약을 체결하여 스타디움을 운영함.



6) <https://www.mk.co.kr/news/sports/11057662>

## 5. 혁신 공공외교 수립

### (1) 어바인 시의회 태미김 시의원 예방 및 리폼한복 기증

○ (일시) 2024. 5. 31.(금)

○ (장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의회

○ (참석인원) 30명(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 어바인 시의회 태미김 시의원 및 보좌진, 어바인 세종학당 원장, 재미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다문화사회 미국에서 재외동포 정치 참여 간담회

→ 미국 최초의 100대 도시 내 한인 여성 시장 배출을 응원하고(태미김 시의원 올해 11월 어바인 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 정치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벳김(태미김 시의원 보좌관)을 비롯한 한인 보좌관네트워크정치와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문화, 경제교류 논의

- 어바인 시의 자연환경, 교육, 치안 시스템 등 특징 공유

→ 계획도시인 어바인 시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시의회가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을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지역에 대학이 3개 있어 고학력자가 많아 기업 하기 좋은 환경(32만명→17만개의 사업장)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어바인을 가족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음.

- ESG 개념을 도입한 공공외교, 리폼한복 기증

→ 공무국외출장단은 지난 5월 7일 여밌선한복으로부터 한복 패션쇼 등 국제무대에서 선보였던 전통한복을 리폼한 한복을 기증받은 리폼한복을 5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의회를 방문해 태미김 시의원, 세종학당, 재미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위

해 활발히 활동하는 해외 명사들에게 전달하는 글로벌 ESG 공공외교 활동을 펼침.

○ (관련 보도) 전라매일

**전라매일**2024년 6월 4일 화요일 005면 사회

## 글로벌 ESG 개념 도입 공공외교 펼쳐

### 전주시의회, 한복을 리폼하여 전 세계 각국에 보급하는 사업 추진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역 소상공인과 손잡고 공무국외출장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단장 송영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의회를 방문해 태미김 시의원, 세종학당, 재미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해외 명사들에게 한복 패션쇼 등 국제무대에서 선보였던 전통한복을 리폼한 한복을 전달하는 등 글로벌 ESG 공공외교 활동을 펼쳤다.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ESG의 구성요소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중심에 지역주민을 두고 공무국외출장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유·무형 자산을 해외에 알

리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한복은 전국추향선발대회 등에 출품된 여미선한복(원장 설미화)의 작품을 리폼하여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여미선한복의 설미화 원장은 지난달 7일 전주시의회를 직접 찾아 16벌의 리폼한복을 기증했다.

송영진 미국 공무국외출장 단장은 “한복으로 대표되는 전주의 한스타일도 알리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패션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리폼한복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전주 한복 명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회가 ESG를 실천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ESG 경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분야에서 해외 교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강호 기자

## (2) 청소년 인재 양성 사례 USLEC(미주범죄예방사법연대) 간담회

○ (일시) 2024. 5. 27.(월)

○ (장소)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KCC

○ (참석인원) 30명(전주시의회 공무원외출장단, 대니얼 송 상임대표, 뉴저지 경찰서장, 전 뉴저지주 소비자국 로널드 리건 수사관 등)

○ (소개) 2015년에 설립된 USLEC(미주범죄예방사법연대)는 이민자들의 범죄예방을 예방하고 한인 차세대가 미국 사법계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 ○ (주요사업)

- 경찰 등 사법기관과 정부기관, 정치권 인사들을 초청해 범죄예방교육 실시
- 매년 한인 2세 고등학생 20명을 선발, 인재발굴 인터십 프로그램 운영
- 한인 고등학생들에 장학금 지급
- 미국 주류사회 정치인 및 사법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 ○ (간담회 내용)

- USLEC (U.S. Law Enforcement Coalition)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법질서 유지를 위해 청소년 때부터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시사점 공유
- 청소년들이 USLEC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 및 법원, 지역사회가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한 논의



### (3) 동부지역 여행사 관계자 면담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 (일시) 2024. 5. 30.(목)

○ (장소) 로스엔젤레스 용수산

○ (참석인원) 26명(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 재미대한축구협회장 전희택 등)

○ (주요내용)

- 관광, 숙박, 의료를 결합한 여행 상품 판매에 관한 협력 방안 논의
- 전주시의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 지원, 미주지역 재외동포 대상 전주시 홍보를 위한 정기적 교류 활동 전개,
- 6월 말부터 장기체류형 여행상품을 본격 판매하고 하반기 관광객 400여 명이 전주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임.
- 향후 전주시의회는 북미시장 전담여행사 협력네트워크를 뉴욕, 뉴저지주에서 남부지역인 아틀란타, 달라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 (업무협약서 내용)

**- 전주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 -**  
**전주시의회-JFK TRAVEL-에이스여행사 업무협약서**

전주시의회, JFK TRAVEL, ACE TOUR는 전주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주시의회”, “JFK TRAVEL”, “ACE TOUR”(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간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전주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
2. 공동 개발 상품의 모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3. 미주지역 재외동포 대상 전주시 홍보를 위한 정기적 교류
4. 그밖에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4조(기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제공되는 각종 기밀정보와 협약당사자의 공동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호 간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5조(정보제공)**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 기관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긴밀히 협조한다.

**제7조(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협약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27일

<p>전주시의회</p> <p>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영진</p> 	<p> Traveler Center</p> <p>JFK TRAVEL 대표이사 JOHN PARK</p> 	<p>에이스여행사</p> <p>에이스여행사 대표이사 JOAN</p> 
---	---	---

## 전주시의회-美 동부지역 여행사 체류형 관광 활성화 협약

전주시의회가 전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뉴욕 및 뉴저지 등 재외동포 여행사 등과 협력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단(단장 송영진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KCC에서 미국 동부지역 여행사인 JFK TRAVEL, 에이스여행사 관계자들과 관광, 숙박, 의료를 결합한 여행 상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출장단은 미국 시장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리고, 전주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시의회와 미국 동부지역 여행사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

지원, 미주지역 재외동포 대상 전주 홍보를 위한 정기적 교류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8월 이후 장기체류형 관광객이 전주에서 머물며 주변도시까지 여행을 즐길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 일행은 지난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동·서부 지역에서 전주시 홍보와 국제 협력 관계 구축 활동을 펼친다. /김낙현기자

### (3) 재미대한축구협회 생활체육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 (일시) 2024. 5. 30.(금)

○ (장소) 로스엔젤레스 용수산

○ (참석인원) 25명(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 재미대한축구협회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전주시의회, 재미대한축구협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 양 지역 생활체육 축구인들의 상호 교류 활성화 지원, 양 지역 축구인들이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양 기관은 다양한 편의 제공, 축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 및 인력 교류 진행



○ (업무협약서 내용)

-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  
**전주시의회-재미대한축구협회 업무협약서**

전주시의회, 재미대한축구협회는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주시의회”, “재미대한축구협회”(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간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당사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각 지역 생활체육 축구인들의 상호 교류 활성화
2. 각 지역 축구인들의 현지 방문 시 현지 체류 공동 지원
3. 생활체육으로서 축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인력의 교류
4. 그밖에 각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4조(기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제공되는 각종 기밀정보와 협약당사자의 공동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밀정보에 대하여 상호 간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5조(정보제공)**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 기관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무)**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긴밀히 협조한다.

**제7조(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협약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5월 30일

전주시의회

재미대한 축구협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송 영 진

회 장  
전 희 택



## IV 정책적 시사점

### 1. 영화영상 시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영화 인력 개발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영화·영상 분야는 여전히 전문 분야의 ‘단순 콘텐츠’로 국한되어 있으며,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영화·영상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화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에 전주시가 영화·영상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전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상림동 전주종합촬영소 일대에 산업단지형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함. 이를 통해 민간 스튜디오와 영상기술 벤처 기업 등을 유치하여 영화·영상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으며, 더불어 향후 신규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인 고량동 산업단지에 특수 촬영 스튜디오와 영화·영상 기업을 집적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이러한 클러스터 조성은 영화·영상 산업의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상호 협력을 촉진시켜 전주를 영화·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테마 기반 투어 구성)** 영화관광은 할리우드가 명예의 거리, 돌비극장, 차이니스 극장 등의 영화시설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 아메리칸 필름마켓 등과 같은 축제와 행사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와 관광을 결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는 중요한 전략이며, 전주는 구도심 영화의 거리와 주요 로케이션 촬영지, 상림동에 조성 예정인 경찰서, 응급실과 같은 특성화 세트장 등 영화·영상 인프라를 연결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음. 또한,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전통 의상이나 영화 속 의상을 직접 입고 사진을 찍거나,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가상현실(VR) 기술 활용)** 특히,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는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영화 역사, 영화의 주요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전주의 영화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영화관광의 흥미를 높이고 몰입감을 증대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관광객들은 VR 기기를 통해 전주의 영화 촬영지를 가상 투어하거나, 영화 속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음.

7)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2. 전광판과 상층부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 야간관광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각종 매력물, 관광편의시설, 조 명 경관 이미지 등 관광 대상으로서 야간시간에 나타나는 관광 현상 을 말하는 것<sup>8)</sup>으로, 최근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간 관광에 서 벗어나 야간관광이 급성장하고 있음.
- 실제 2022년 한국관광공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내 국내 여행 경험자 중 야간관광 경험 비율은 58.4%로 나타났으며, 야간관광지를 가장 큰 이유로는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61.2%), 여유로운 일정으로 여행 가능(46.5%), 관광지 혼잡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 (36.3%), 야간에만 할 수 있는 활동·체험(34.9%) 등이 있었음. 또한, 야간관광 시에는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69.0%) 등 콘텐츠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야간 산책 (49.7%), 식도락 관광(40.6%), 도시야경 감상(30.5%), 야시장·전통시 장 등(29.2%)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야간관광 활동 시, 여행객 평균 체재 일수가 7.2일에서 7.9일로 증가했고, 약 5,30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실시한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잠재력 이 풍부하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 체류형 야간관광 생 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숙박·교통·안내·쇼핑 등 야간관광 여건을 갖춰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필요성이 있음.

8) 노윤구,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경영학회(2018)

- **(야간관광 전략지구 선정)** 야간관광 전략지구는 인프라와 야간관광 자원이 잘 구축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야간관광의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벤트를 개발·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상층부를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 전망이 좋은 치명자산, 기지제, 덕진공원 등에 특색 있는 뷰 포인트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설치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더해 관광객들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옥외광고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라스베이거스의 프레몬토 거리의 전구쇼처럼 전주시만의 독창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LED 전광판과 아트월 조성)** LED 전광판과 아트월 조성은 야간경관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 새롭게 건립되는 독립영화의 집과 복합스포츠타운 등 대형 시설물들의 외관에 미디어 아트와 예술 요소를 결합한 LED 전광판이나 아트월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LED 전광판 등은 지역의 밤 경관을 풍부하게 하고,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테마가 있는 야간관광 코스 개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가 있는 야간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역사문화 자원과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시키거나 야간관광~숙박~새벽 경관 명소를 연계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객들이 다양한 테마의 야간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3. 명명권 부여를 통한 효과적인 대형 스포츠 시설 운영 방안

- 전주시가 추진 중인 ‘2040 호남제일문 복합 스포츠타운 대표 관광지 조성 계획’ 은 약 88만2074㎡ 부지에 호남제일문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포츠 관람, 스포츠 체험, 힐링, 나들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에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스포츠 시설의 확충에는 막대한 운영비와 유지비가 따르기에,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명명권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에도 도입된 스포츠 명명권)** 명명권은 특정 스포츠 시설, 경기장, 이벤트, 리그 등의 이름을 기업이나 단체가 일정 기간 사용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미국의 소파이 스타디움은 20년간 매년 3,000만 달러, 총 6억 달러의 명명권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스포츠 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명명권이 활용되고 있음.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 ‘한화 이글스 파크’,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 ‘수원 KT위즈 파크’, ‘삼성 라이온즈 파크’ 등 야구장들은 구단이 명명권을 획득한 사례에 해당하며,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은 SK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경기장을 10년간 433억 원에 기부한 뒤 명명권을 부여받은 사례에 해당함.
- **(호남제일문 복합 스포츠타운의 명명권 도입 필요성)** 복합 스포츠타운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드론스포츠센터,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국제수영장 등 총 8개의 체육

시설을 포함하여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며, 이러한 대형 스포츠 시설의 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명명권 도입이 필요함.

- **재정 안정성 확보** : 전북은행, 하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나 단체와의 장기적인 명명권 계약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타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 또한, 명명권 도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민간 투자 유치** : 명명권 도입은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음. 기업은 명명권을 통해 브랜드 노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타운의 홍보와 마케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명명권 도입 전략 및 사례 분석)** 명명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명명권 가격 책정** : 적절한 명명권 가격 책정이 필수적임. 가격은 시설의 위치, 이용객 수, 기업의 브랜드 노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가격 책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계약 기간 설정** : 명명권 계약 기간은 기업의 투자 의향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해야 함.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선호되며, 이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브랜드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마케팅 및 홍보 전략** : 명명권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 캠페

인을 전개하고, 명명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홍보해야 함.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명명권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성공 사례 분석** : 해외 및 국내 명명권 도입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소파이 스타디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명명권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성공 사례의 도입 과정, 계약 조건,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도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4. 팔복예술공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 팔복예술공장은 과거 산업 공간을 재생하여 예술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공간이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방문객들이 오래 머무르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뉴욕 맨해튼의 대표적인 푸드 마켓 겸 쇼핑몰인 첼시마켓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팔복예술공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첼시마켓의 성공 요인 분석)** 첼시마켓은 과거 비스킷 공장을 개조하여 다양한 식음료 매장과 상점, 예술 공간을 마련한 복합 문화 공간임.
  - **다양한 음식과 독특한 상점:** 방문객들이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독특한 상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 **역사와 문화적 가치:** 과거 비스킷 공장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문화와 접목시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
- **(팔복예술공장의 인프라 개선 방안)** 팔복예술공장은 현재 전시장, 도서관, 카페 씨니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방문객들이 오래 머무르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이로 인해 방문객 유입이 제한적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예술가 및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음. 장기적으로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BYC 전주 공장 부지 등을 매입하여 팔복 문화 권역을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음식과 휴식 공간 마련 :** 씨니카페 외에도 지역농산물과 특

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는 로컬 맛집 유치가 필요하며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씨니 카페나 로컬맛집과 연결된 야외 테라스를 조성하여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체험 프로그램 및 공간 확대** : 평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외에 주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팔복예술공장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함.

- **문화 상점 및 갤러리 샵 운영** :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갤러리 샵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이 예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팔복예술공장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함.

## IV 개별 연수 보고서

송영진 의원

# 영화야간관광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글로벌 영화시설 벤치마킹
  -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콘텐츠 확충 및 발전 방향 모색
  - 해외 기관·단체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 작 성 자 : 송 영 진

### □ 현 황

-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올해 25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 편의 영화가 전주에서 촬영되어 영화 촬영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관광 측면에서 영화를 매개

로 한 혁신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전주시의 문화, 관광,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 출장 세부내용

- 명성의 거리와 돌비극장 등 할리우드 영화시설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직접 체험하고,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3D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해 상업적 테마파크로 만든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하여 공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영화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 도시의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LED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타임스 스퀘어, 천정을 활용한 라스베이거스 프레몬트 거리의 전구쇼 등을 벤치마킹하여 전주만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
- 재외동포 축구 동호회 180여 개, 2,5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 참석 시 우리 시 방문 및 지역 축구 동호회와의 교류 추진 등을 위한 미국 재미대한축구협회와 생활체육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관광 트렌드가 체류형, 콘텐츠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동부지역 여행사(JFK TRAVEL, 에이스여행사) 대표 면담

##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쿠키필름스튜디오와의 아시아 제2 스튜디오 건립 MOU 체결 등으로 영화영상산업에서 우리 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에서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기에 할리우드의 영화시설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1,500만 명을 돌파하여 역대 최대 인원을 갱신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풍부하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

텐츠를 개발하지 못하면서 체류형 야간관광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국제화 시대에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글로벌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체육, 문화, 예술, 정치, 기술개발 분야의 공공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 VR 기술을 활용한 영화 촬영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

- 전주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아름다운 자연경관, 독특한 도심 분위기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영화 속 장면을 직접 체험하고 촬영지의 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화 투어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스튜디오에 VR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영화의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듯이, 우리 시도 영화 촬영지와 주요 거점들을 연결하고, VR 기술을 적용하면 전주만의 특색있는 영화 촬영지 투어를 만들 수 있음. VR 기술을 통해 영화 촬영지를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고, 관광객이 직접 영화 속 캐릭터가 되어 장면을 재현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오스카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60%가 촬영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철거된 <기생충>의 세트장을 새로 짓는 대신, VR 기술을 이용해 <기생충>의 장면을 최첨단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함.

○ 관광, 숙박, 의료, 체육을 결합한 해외 체류형 관광객 유치

- 북미지역 재외동포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 의료를 결합하거나 체육인들의 전지훈련을 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재외동포 및 해외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뉴욕,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아틀란타, 달라스 그리고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까지 판매 채널인 전담여행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주시 농생명소재연구원-THE PLUG 업무협약 추진

- 미국 내 빠르게 성장하는 숙취 음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재외동포 스타트업 기업인 THE PLUG와의 공무국외출장 시 논의한 대로,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에 THE PLUG 대표가 방문할 예정임.
- 전주시의회는 가교 역할을 통해 THE PLUG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소 간의 협약 체결을 주선하고, 이를 통해 양 기관이 숙취 음료 관련 기술 교류 및 지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미나리, 콩나물 등의 원재료 수출을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스산업, 야간경관 및 체험형 관광 사례 도입 방안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종합경기장 미스산업복합단지 개발 관련 미스 및 문화시설 시찰
  -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콘텐츠 확충 및 발전 방향 모색
- 작성자 : 이 성 국

### □ 현 황

- 전주는 현재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지만, 볼거리가 제한적이며, 특히 야간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기에 다양한 볼거리를 개발하고 야간경관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대형 스포츠 시설을 집적화한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 중이며, 이와 더불어 관광객과 선수단 등이 스포츠타운 내에서 관람, 문화관광, 숙박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거점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임.

## □ 출장 세부내용

- 미국은 다양한 자연경관과 유명한 테마파크,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평가받고 있음. 대표적으로 뉴욕의 야간관광, LA의 할리우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연결하는 영화 투어 등이 큰 인기를 끌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음.
- 미국에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이스산업, 야간경관, 관광산업 분야의 다양한 혁신 사례가 있음.
- 마이스 산업의 혁신사례로 로스앤젤레스의 소파이 스타디움(SoFi Stadium)을 방문, 명명권과 광고 수익 등을 활용한 대형 경기장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 야간경관의 혁신사례로는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를 방문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 사례를 견학
- 관광산업 분야의 혁신사례인 뉴욕의 더 라이드(THE RIDE BUS) 체험을 통해 전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유형 탐구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소파이 스타디움의 타원형 디스플레이
  - 로스앤젤레스의 소파이 스타디움(SOFI STADIUM) 안에는 삼성의 첨단 기술로 제작된 70,000평방피트의 타원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있으며, 8천만 픽셀의 실감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하여 경기장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스피어의 최첨단 시설
  -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는 23년 9월 개장한 공연장으로, 공연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체 모양 건축물임.

한꺼번에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건물 외벽에는 18K 수준의 LED 약 120만 개를 설치하여 생생한 영상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음.

#### ○ 투어버스로 운영되는 더 라이드 버스

- 뉴욕의 더 라이드 버스(THE RIDE BUS)는 타임스 스퀘어를 비롯한 뉴욕 중심지들을 집중적으로 관람하는 투어버스로, 이동식 극장이라고 말할 수 있음. 뉴욕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카네기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을 버스에 승차한 상태로 돌아보도록 되어 있으며, 거리 중간 중간에는 연기와 공연자들이 배치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투어와 공연이 결합된 이색버스 투어 개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 전주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조성시 실내 디스플레이 설치

-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보았듯, 전주 북부권에 조성중인 복합스포츠타운 대형 스포츠시설의 실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영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운영비의 일정 수준을 충당할 수도 있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건축물의 외관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성

-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사례에서 보았듯, 대형 구체 모양 건축물의 외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는 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조성 중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복합스포트타운 등 대형 시설물들의 외관을 활용하여 LED 옥외 광고 시스템과 같은 야간경관을 조성한다면, 부족한 야간경관 콘텐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 ○ 전주 RIDE BUS 도입

- 뉴욕의 더 라이드 버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 소규모 RIDE BUS 도입을 제안함. 버스 투어 코스에는 한옥마을 특성에 맞는 전통 예술인들과 연기자들을 배치하여, 이들의 공연을 버스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전동성당과 풍남문 등 전주가 가진 역사적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전주시 다문화 청소년 인재 양성 준비가 필요하다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 해외 기관·단체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 다문화 청소년 인재 양성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벤치마킹
- 작 성 자 : 남 관 우

### □ 현 황

-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용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여전히 사회적·경제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요구됨
- 또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가족 갈등, 부부 폭력, 자녀 양육 문제 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낙인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출장 세부내용

### ○ USLEC(미주범죄예방 사법연대) 간담회

- USLEC는 이민자들의 범죄 예방과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여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로, 매년 20여 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1년간 인턴십,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해당 단체는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유엔본부, NYPD, 그라운드 제로 박물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USLEC는 2015년에 설립되어 매년 20여 명의 꿈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1년 과정의 인턴십,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까지 160여 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고 있음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세이 작성,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 현장 체험 학습(유엔본부, NYPD, 그라운드 제로 박물관 등)을 포함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이민 2세들이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 현재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주시 거주 외국인 수는 15,728명으로 그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11,509명에 해당함
- 다문화 가구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비율이 높으며, 이들의 자녀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 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도입

- USLEC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전주시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멘토십,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교육 제공해야 함

###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 처우 개선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력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인력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함

#### ○ 다문화가족의 세분화 및 실태조사 필요

-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이주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다문화가족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전주시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범죄 실태와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범죄 예방 및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 전주시의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시키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전주시 공원 및 환경 관리 자원봉사 제도 도입 검토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미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제도 벤치마킹
  -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모색
- 작 성 자 : 최 주 만

### □ 현 황

- 전주시는 도시공원의 증가와 함께 공원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원과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도심 지역에서는 청소와 가로환경 정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 □ 출장 세부내용

- 라스베이거스 레드락캐니언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제도를 활용한 예산 및 인력 문제 해결 사례를 조사

- 미국 국립공원청의 Volunteers-In-Parks(VIP)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국립공원의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VIP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책임, 혜택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함
- 레드락캐니언 국립공원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용 사례를 통해 전주시 공원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1872년 제18대 그랜트 대통령이 옐로스톤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립공원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국립공원청은 미국 내무부에 속하며, 20,000명 이상의 직원이 400개 이상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와의 파

트너십을 통해 공원의 보존과 관리에 기여함

- 국립공원의 VIP 프로그램은 1970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여 국립공원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전주시는 도시공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공원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공원 청소와 수목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신도심에서는 상가와 골목, 공원 주변 등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와 곤충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 도입

- 미국 국립공원청의 Volunteers-In-Parks(VI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전주시 공원 및 환경 관리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자의 권리, 책임, 혜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봉사자가 공원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함

##### ○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관리와 환경 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
-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 마련

- 예를 들면, 공원 및 환경관리에 가담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전주시 공영 주차장 이용 시 할인 등과 같은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구축

- 자원봉사자들이 손쉽게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정보제공 포털 운영해야 함.
-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전주시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콘텐츠 확충 및 체험형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 작성자 : 정 심 길

### □ 현 황

- 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적고 전체적인 야간 조명이 부족함
-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전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야간경관 개선과 계획이 필요함

### □ 출장 세부내용

- 허드슨 리버파크 등 : 건물 상층부, 해안가 고지대 등을 활용한 도시

야경 특화 전망대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뉴욕의 다양한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밤의 스카이라인’을 통해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함.

- 라스베이거스 야간 씨티 투어 : 다양한 호텔(뉴욕, 룩소, 벨라지오, 엑스칼리버 골든너켓호텔 등) 및 프리몬트 스트릿을 방문하여, 라스베이거스의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명을 벤치마킹하여 전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라스베이거스는 세계적인 야간경관조명의 메카로, 도시 전체에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자랑하는 호텔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조명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도시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음

- 뉴욕은 랜드마크인 초고층 빌딩들이 밤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도시의 야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전주는 역사 깊은 도시로 체험형 관광상품을 창조할 재료가 풍부하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도로, 하천, 호수, 공동주택, 문화유산, 주요 거리가 각각 진행되고 있어 빛의 균형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야간명소 필요
  - 서울 남산 서울타워와 부산 황령산 전망대와 같이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야경 명소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하며, 전주의 고유한 역사적 건축물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야경 명소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를 대폭 완화하여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4(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에서 명시하고 있음. 해당 구역은 현재 제2기가 추진되었으며 그동안의 성과는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를 완화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바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제3기 구역 지정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이 도입되면 뉴욕 타임스 스퀘어나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가능할 수 있음

○ 야간경관 관련 조례 수립 필요

- 현재 전주시는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무분별한 야간경관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 경관 조례에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김동헌 의원

## 콘텐츠 창조 관광의 메카 미국에서 배운다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글로벌 영화 시설 벤치마킹
  - 체험형 도시농업에서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 발전 방향 모색
  - 전주 야간관광 특화도시 콘텐츠 확충 및 발전 방향 모색
  - 해외 기관·단체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 작 성 자 : 김 동 헌

###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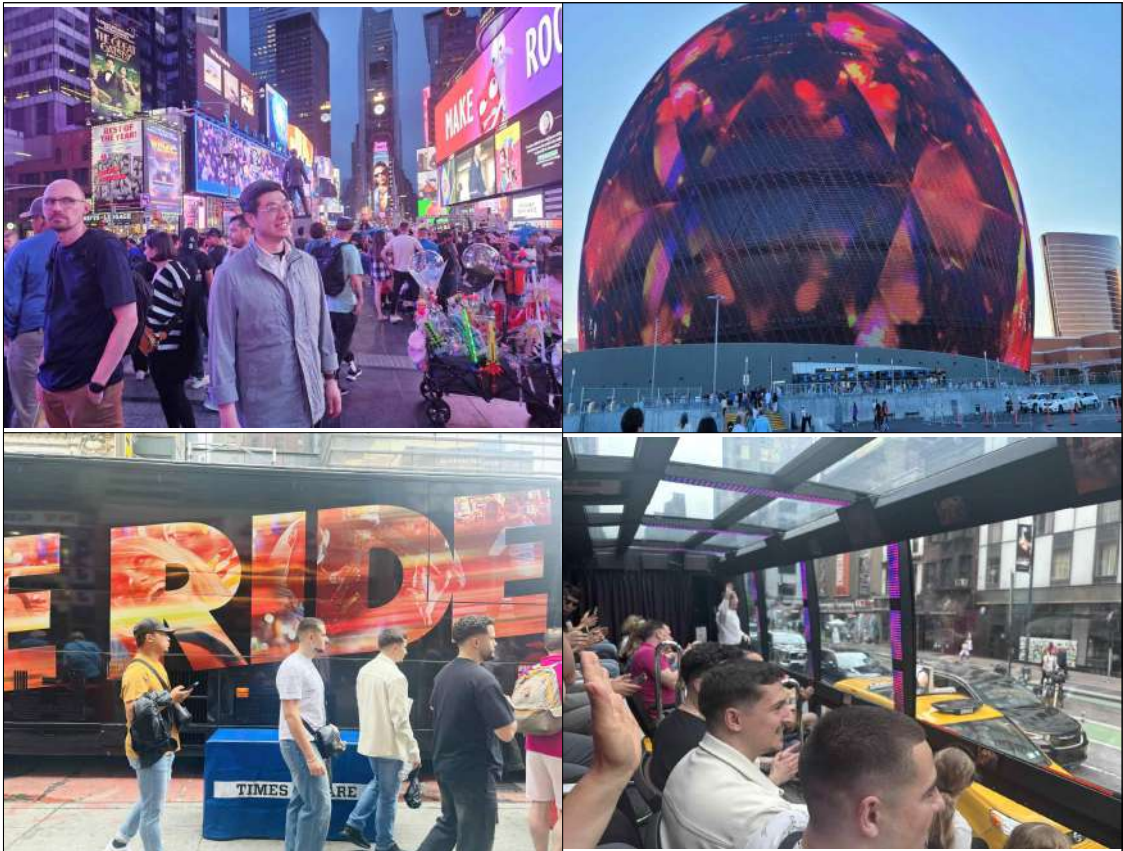
- 전주시는 한옥마을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전주의 지역 관광산업 실체가 한옥마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
- 한옥마을 탄생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와 보수만 해온 한옥마을은 관광객을 새로이 발걸음을 하게 만들 추가적인 콘텐츠가 필요함.
- 한옥마을에서 국한된 관광이 아닌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광객을 체류시킬 콘텐츠의 필요성이 절실함.

### □ 출장 세부내용

-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의 도시를 방문하고 역

사가 길지 않은 미국의 관광산업의 구성이 어떠한지 직접 체험함.

- 미국 한인 교민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생활체육팀 국내 방문 시 전주를 방문해 줄 것을 협약으로 요청하며 교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시 전주 중심의 의료 및 레저 등 체류형 관광 협약을 체결함.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미국은 세계 경제, 산업, 관광 등 막강한 자본으로 어느 부분에서도 뒤쳐지지 않은 최강국으로 자본 중심으로 지어진 시설 등에서는 전주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음
- 미국에서 인상 깊은 관광은 어느 관광지를 방문하더라도 각종 기술과 기법을 활용한 상호 소통형 체험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어 관광객

들에게 경험을 줌으로써 인상 깊은 관광이 되게 함

-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지만 이러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창조하고 상품으로 개발하고 특화하여 발전시키고 있음
- 전주는 역사 깊은 도시로 이러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창조할 재료가 무궁무진함. 첨단 장비를 활용한 콘텐츠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전주에서 진행되는 문화재 야행 등의 콘텐츠는 완성형으로 이제는 더 확대 발전시킬 새로운 유형의 하드웨어가 필요함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뉴욕의 THE RIDE BUS는 뉴욕시의 시티투어 버스로 단순히 도시를 둘러보는 순환형 시티버스가 아닌 뉴욕의 신호체계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런타임을 조정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조했으며 버스 내부 안내 가이드와 창밖에서 뉴욕 시민, 브로드웨이 배우, 관광객 등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과 소통하며 도시를 소개함으로써 도시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관광객들이 뉴욕에 녹아드는 경험을 줌으로 뉴욕을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주의 문화재 야행은 위와 유사한 콘텐츠로 경기전과 전라감영 주위로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상품이지만 한시적으로 상·하반기에만 경험할 수 있어, 제한적임. 이러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한옥마을 순환하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경기전과 전라감영 그리고 각종 전통시설을 순환하는 차량을 만들고 배우들을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전주의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 생각됨.

- 영국의 버킹엄궁과 유럽의 왕정이 아직 남아있는 국가에서 수문장 교대식은 그저 그들의 생활이지만 그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여 경복궁 등 전통 수문장 교대식이 인기를 끌 듯, 그저 단순히 보고 먹고만 가는 한옥마을에서 실제로 조선에 들어온 듯 체험과 경험을 선사하는 한옥마을로 변해야 할 것임.
-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졌지만, 그곳에 있는 테마파크는 유니버설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영화들을 구현한 곳으로 위의 뉴욕의 THE RIDE BUS처럼 방문객들에게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경험을 줌.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람, 공룡, 로봇 등 각종 캐릭터를 구현하여 기계가 아닌 사람이 영화의 캐릭터와 같게 연기함으로 상당히 사실적인 경험을 줌.
-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도 이름만의 영화 촬영만의 목적이 아닌 추가적인 자본을 유치하여 영화의 판권을 임대 혹은 구입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 영화를 본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아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미국에서 배운 대형 경기장 운영의 지혜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종합경기장 마이스산업복합단지 개발 관련 마이스 및 문화시설 시찰
  - 해외 기관·단체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 작 성 자 : 김 윤 철

### □ 현 황

- 전주 북부권에는 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 중이며,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 대형 체육시설의 건립이 추진 중임.
- 토지매입부터 조성 완료 단계까지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육시설 조성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역시 시 재정에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출장 세부내용

- 미국의 대형 체육시설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SoFi Stadium에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의 전략화로, 명명권을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사례에 대한 학습하였음.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의 SoFi Stadium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장 비싼 명명권 계약을 한 경기장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음.
- 7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멀티 공간으로 미식축구 전용 구장으로 사용되는 대형스타디움으로, 경기장 중앙 거대한 원형 전광판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사용되었으며, 명명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사고로 접근한 것이 특징임.
- 스포츠마케팅을 전략화 하여 명명권을 활용,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 재정부담을 덜고 있음.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 북부권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에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하

여,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 대형 체육시설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음.

- 이 사업들은 큰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전주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유지 및 관리에도 많은 비용을 소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SoFi Stadium은 매우 중요한 선례라고 볼 수 있음.
- 열악한 전주시 재정 환경으로 대형체육시설 및 공간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적지 않은 부담을 유발하게 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사례이지만 전주시가 앞장서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재정수입으로 시설물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전주시도 SoFi Stadium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내 우수기업인 하림, 전북은행 등을 섭외해 대형 체육시설의 명명권 거래 계약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또한, 경기장 내 시설 하단부 벽체 및 상부 공간 미디어 홍보 및 광고판 설치하여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공무국외출장 소감

- 금번 출장 기간에는 보고 배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에 접목시키고자하는 노력이 일행들의 면면에서 발견되었음.
- 미 동부지역의 대표여행사와 체류형 관광을 소재로 하여 상호 업무협약식을 갖고, 한복을 매개로 어바인시를 방문하여 한인 출신 지도자들과 현안을 토론하며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교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접하였음.

- 금번 출장기간 중에 방문단의 성격을 뛰어넘어 의회 차원의 주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그간 출장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음.
- 특히, 영화산업의 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똑똑히 증명해 주었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사랑받는 걸작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토록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크고 작은 시설들이 수반되고 현실감 있게 설치되어야 하는가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고, 우리 전주시 또한 쿠뮤스튜디오와 업무협약을 마치고 준비 중인 영화 촬영제작소 건립에 더욱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음.
- 방문 일정 중에서 큰 기억과 다짐을 던져준 것은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의 전략화로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의 재정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사례였음.
- 원만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수익이 필요함. 그런 점에서 전주시는 기존의 월드컵 경기장 및 신축을 시작한 실내체육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건축물에 광고 공간을 마련하여 관리비를 충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전주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도내 우수 기업인 하림을 섭외하여 「하림 실내체육관」으로 명명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대형 행사를 치르게 되면 광고효과도 클 것이므로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한 사업구상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눈치볼 것없이 자치 역량을 키워서 재정자립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 전환 정책으로 다가서야 할 것임.

## 주민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는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센트럴파크의 주민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는 선진사례 학습
  - 오래된 고가 철도를 재생, 주민 휴식공간을 만든 하이라인 벤치마킹
- 작 성 자 : 박 혜 숙 문화경제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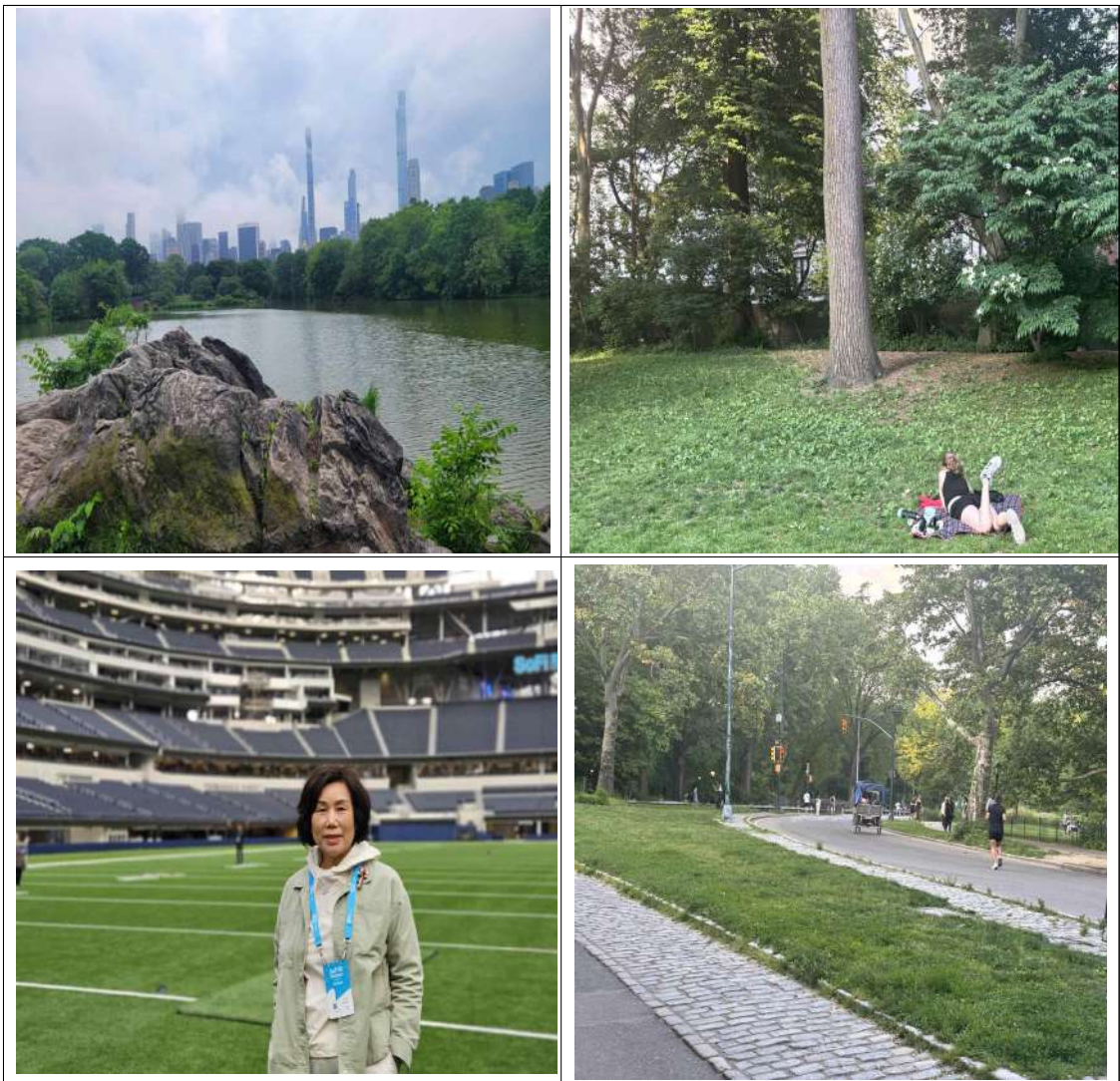
### □ 현 황

- 전주시 북부에 위치한 에코시티는 13,000여 세대가 입주한 신규 택지지구로, 그 중앙에는 에코시티의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세병공원이 있음.
- 전주 역세권은 90년대 유동인구가 많은 활발한 지역이었으나, 유흥 중심지 이동과 완주군청 이전 등으로 인해 구도심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임.

### □ 출장 세부내용

-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패권 국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민선 8기에 접어든 전주는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이스산업, 영화산업, 야간관광 등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였음.
- 이들 중점 추진 분야의 선진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방문하여 마이스, 영화산업, 야간관광 등의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전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특히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 공원은 유지 관리에 있어 시민들의 기부금과 봉사가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공공재에 대한 시민 참여 거버넌스 사례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 그 배경과 노하우를 견학.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 센트럴파크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대규모 도시 공원으로, 약 341헥타르에 달하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공원임.
- 각종 문화 행사와 운동 등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단순한 공원을 넘어 뉴욕의 문화와 역사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센트럴파크가 없었다면 뉴욕은 그만큼 큰 정신병원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로와 빌딩으로 가득한 뉴욕에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센트럴파크의 위상은 시민들이 공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남. 센트럴파크의 관리비는 80%가량을 주변 고급 아파트 주민들의 기부로 충당하며, 공원의 관리는 비영리단체인 센트럴파크 보존위원회(the Central Park Conservancy)와 뉴욕시가 함께 담당하고 있음.
- 공원의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여는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과 소속감을 불러일으키고, 공원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였음.

### ○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하이 라인 공원

-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서부에 위치한 공원으로, 1980년대 철도 운행이 중단되면서 방치된 고가 철도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 그 시작임.
- 본래 방치된 상태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는 것이 유력했던 고가 철도였으나, “하이 라인 친구들(Friends of the High Line)” 이라는 비영리 시

민단체가 설립되면서 그 처분을 두고 방향이 전환되었음.

- 이 단체는 단순히 공원 조성에 대해 주장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토주와의 소송이나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냄.
- 또한, 조성 이후에도 예산의 98%를 기부금과 공간대여료 등으로 충당하고 하이 라인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협업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음.
- 하이라인 공원의 조성은 단순히 도심 속 녹지 제공이라는 기능을 넘어서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제공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범죄 발생율을 낮추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킴.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 세병호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 공원 운영 사례에서 보았듯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과 운영에 대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참여는 공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킴.
- 에코시티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세병호 역시 에코시티 주민들의 안식처이자 전주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다만, 지금처럼 행정에서 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상황은 예산과 행정 여건에 따라 변동이 큰 만큼, 지속가능하지 않음.
- 세병호 운영에 있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참여 비율을 높여, 시민들의 공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 도심 속 주요 지점들을 연결하는 보행 공간 조성

- 하이라인 공원은 도심 속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보행 공간 조성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례임. 맨해튼 서쪽의 첼시 지역을 따라 조성된 문화, 예술, 상업 명소들은 하이 라인 공원과 연계되어 유동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였음.
- 하이라인 공원과 인접한 지역들은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었고 가치가 상승하였으며,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업 활동이 증가하는 등 경제 효과 창출로 이어졌음.
- 우리 전주시에도 곳곳에 존재하는 주요 문화, 예술, 상업 명소 지점들이 있음. 이들 지점을 연결하는 보행로 및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 효과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전주푸드직매장 및 영화종합촬영소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미국 파머스마켓 방문을 통한 전주푸드직매장 활성화 방안 탐구
  - LA융복합 관광산업 성공 사례지의 영화 관광 명소 조사 및 벤치마킹 방안 도출
- 작 성 자 : 전윤미

### □ 현 황

- 전주시는 2015년 전국최초 대도시 먹거리전략인 “전주푸드2025플랜”을 세우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현재 전주푸드직매장 송천점과 효천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음.
- 전주푸드직매장은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개선과 지역농산물의 지속적 판로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매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방문하는 등 확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전주푸드직매장의 지역농산물 소비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증대를

위해 매장 인근 외 주민들과 관광객들까지 방문을 유도할 만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전주시는 영화종합촬영소가 있고 일원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을 진행, 큐뮤스튜디오와 제2 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하는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영화·영상산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음.
- 영화산업은 관광상품으로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영화관련 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촬영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출장 세부내용

- 로스앤젤레스의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세계의 특산품 및 수제식품, 레스토랑 등 100여 개의 상점이 영업 중인 대규모 야외 시장으로 발전한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 방문 및 조사
- 세계적인 영화 관광의 명소로 평가되는 할리우드 관광 코스(돌비극장, 명예의 거리, 차이나이즈 극장 등) 탐방을 통한 전주시 영화산업 관광 연계 및 발전 방안 연구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로스앤젤레스의 파머스 마켓은 1930년대 대공황 기간에 West 3rd street 에 소재한 공터에서 농부들이 트럭을 주차시켜 주민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시초로, 미국뿐만 아닌 국내외에 흔하게 열리는 파머스 마켓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음. 때문에 “The Original Farmers Market” 으로 지칭되고 있는 장소임.
- 현재의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은 100여 점의 상점이 밀집해 있는 대규모 야외 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과 푸드코트 형식의 다양한 식품 판매점이 있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발전했음.
- 또한, 오리지널 파머스 마켓에서는 주말이면 라이브 음악 공연, 요리 시연, 축제 등 각종 이벤트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이 아닌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명소가 되어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코스가 되었음.
-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관광코스인 TCL 차이니즈 극장, 돌비 극장, 명예의 거리는 영화·영상산업이 관광상품으로 연결된 가장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2.1km에 달하는 명예의 거리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진 별모양의 타일이 보도를 이루고 있어 거리 전체가 포토스팟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화·영상 관련 시설과 기념품점 등이 위치해있음.
- TCL 차이니즈 극장은 중국식 건축 디자인으로 지어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극장 앞에는 200여명의 유명 인사가 남긴 손·발 프린팅과 자필 사인이 각인된 콘크리트 블록이 있는 ‘포코트 오브 더 스타’ 광장이

있음.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맥스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좌석, 바람과 물보라, 냄새 등 다양한 특수효과와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MX4D 모션 EFX 극장도 있어 관객들에게 한층 더 생생한 영화 관람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 TCL 차이니즈 극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돌비 극장은 2002년 이래로 매년 2월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개최되는 장소로 유명하며, 시상식 외의 기간에는 일반인이 신청을 통해 내부에 출입 가능해 역대 수상자 사진, 오스카상 트로피, 객석 및 스테이지를 관람할 수 있음.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더 오리지날 파머스 마켓은 본래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식재료 구입 뿐만 아닌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공연 관람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성장하여 매년 수백만 명의 현지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음.
- 이는 단순한 판매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함.
- 전주시는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고, 전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의 먹거리를 경험하고자 방문하기 때문에, 전주푸드를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 간헐적으로 일정 기간만 개최하고 있는 전주푸드직매장의 야외 직매장을 상설화하고, 푸드코트 형식으로 해당 장소에서 바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조건 형성과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매장 인근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할리우드는 본래 로스앤젤레스의 지역명에 불과했으나 영화촬영소가 설립이 시발점이 되어 영화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하였음.
- 전주시도 상림동 영화종합촬영소와 영화의 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며, 독립영화의 집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등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음.
- 다만, 국제영화제 기간을 제외하면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관련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하기에 전주시 영화산업이 관광으로 연결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할리우드의 거리처럼 언제든지 방문해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관련 시설 구축과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영화종합촬영소는 현재 관광 장소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촬영소를 중심으로 방문객들이 관람 및 체험가능한 세트장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극장 등의 시설들을 구축하고, 영화 관련 상점을 활성화하는 방안, 국제영화제 외에도 관련 행사와 축제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 영화종합촬영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
- 방문목적
  - 선진 도시재생 사례 견학 및 탐구
  - 도시재생 공간 브랜드화 및 관광 연계 방안 모색
- 작 성 자 : 천 서 영

### □ 현 황

- 전주시는 2016년부터 16건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7년까지 총 25개의 거점시설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는 등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 중 팔복예술공장과 같이 성공적인 사례도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하면 새로운 공간으로 브랜드화되고, 관광 콘텐츠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부족함.
- 또한, 성매매 집결지에서 예술마을로 탄생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던 서노송예술촌이 전주시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급속도로 쇠락하거나, 2020년 복원이 완료된 전라감영길

이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는 등의 문제 발생

- 도시재생 사업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공간으로의 재탄생과 되살아난 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고민과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 출장 세부내용

- 미국 뉴욕시의 오랜 시간 방치된 노후 선로를 재생하여 현재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선진 도시재생의 사례로 평가되는 하이라인파크 방문 및 조사
- 19세기 말에 지어진 쿠키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하이라인파크와 함께 뉴욕 여행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한 첼시마켓 탐방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하이라인파크는 맨해튼의 화물 선로로 이용되다가 노후되어 방치된 길이 2.4km가량의 고가 철도 구역을 복원하여 도심 속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장소임.
- 노후화가 심해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흉물로 여겨져 다수가 완전한 철거를 주장하였음에도 로버트 해먼드와 조슈아 데이비드 등이 주축이 되어 철거를 막고 공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현재는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음.
- 하이라인파크에는 350종 이상의 다채로운 묘목들과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그들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곳곳에 다양한 디자인의 벤치와 선베드 등이 배치되어 시민들이 쉬어갈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또한, 공원 곳곳에 베슬(Vessel)로 대표되는 인공 구조물들과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몇몇 구간에는 철길들과 옛 시설들을 보존하여 화물 선로로 이용되었던 역사를 보존하고 있음.
- 첼시마켓은 본래 오레오 쿠키 생산에 사용되었던 공장을 개조한 실내 마켓으로 식료품, 레스토랑, 카페, 편집샵 등 35개가 넘는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해 있음.
- 첼시마켓의 내부는 인더스트리얼 스타일(industrial Style)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깔끔한 현대식 디자인이 어우러져 있으며, 과거 공장으로 사용되던 시절의 자료와 시설도 관찰할 수 있음. 또한, 통로 곳곳에 다양한 벽화와 구조물들이 관광객들의 포토스팟이 되고 있음.

- 하이라인파크와 첼시마켓 모두 지역의 쇠퇴한 공간을 재창조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파생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첼시 마켓이 혼한 도심 속 공원이나 식료품마켓을 넘어 도시재생의 선진적 사례이자, 한 해 수백만 명의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된 이유는 노후화된 공간을 현대적인 도시에 맞게 재개발하면서도 본래의 역사성을 곳곳에 보존하였다는 점에 있음.
- 전주시의 팔복예술공장과 전라감영길이 우수한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 역시 완전한 철거 및 재개발이 아닌 기존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문화와 예술을 적절히 접목하였기 때문임.
- 이는 도시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함. 현대 사회에서 급속한 개발과 함께 전통적인 건축물과 유산이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역사성을 보존과 현대적 개발을 접목한다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축적된 이야기와 문화를 후세에 전달하며,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특히,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바는 전통문화와 관련한 경험을 하는 것임. 따라서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단순히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아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또한, 하이라인파크에는 투어 프로그램, 무료 콘서트, 문화 수업, 가족프로그램 등 휴식 외에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첼시마켓은 하이라인파크 코스의 시작이자 끝에 위치하여 주요 상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팔복예술공장이 전주문화재단의 운영 속에 지속적인 콘텐츠가 개최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계속해서 찾는 장소가 되고 있는 반면, 서노송예술촌은 전주시가 손을 떼자마자 다시금 폐허가 되어버렸고, 전라감영길은 다양한 콘텐츠와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되고 있음.
- 즉, 도시재생이 일시적인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되살아난 활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을 만한 동기를 만들어 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최하고, 주변 상권이 발전하여 성공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함.

## 관광 분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도입 방안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관광 분야 ESG 정책 발굴 모색
  - 해외 기관·단체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활동 강화
- 작 성 자 : 온 혜 정

### □ 현 황

- ESG는 기관의 전략 실행과 기업 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임.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증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윤리적 소비자 증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ESG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지구촌 차원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탄소중립’ ‘환경보전’ 등 ‘환경(E)’ 분야를 중심으로 위주로 ESG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의회도

기업과 주민의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SG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도 본 의원의 발의로 올해 4월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 출장 세부내용

- 전주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과 손잡고 공무국외출장에 글로벌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4년도 전주시의회 의원 미국 출장단은 지난 5월 31일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의회를 방문해 태미 김 시의원, 세종학당, 재미대한체육회 관계자 등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해외 명사들에 리폼한복을 전달했음. 이 한복은 전국춘향선발대회, 한복 패션쇼 등 국제무대에서 선보였던 것으로, 전주 여밈선한복의 설미화 원장이 새롭게 리폼하였음.
- 미국의 관광 분야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있음. 많은 호텔들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수 등의 음료를 제공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샴푸, 바디워시, 로션 등의 어메니티를 다회용 용기에 담아 제공하고 있으며, 물 절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으로 전환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2022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국가여행 및 관광전략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실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을 세계적인 여행지로 홍보하고(2027년까지 연간 90백만 명의 국제 방문객을 유치, 여행 서비스의 장벽을 줄이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민간과 공공에서는 ESG 관련 다양한 실천활동을 발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 서약이 크게 주목 받았음.

###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 서약>

1. 세도나의 공공장소와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소음을 줄일 것을 맹세합니다.
2. 세도나의 건조한 자연 환경에 유념하여 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화재를 조심하겠습니다.
3. 환경에 내가 머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여행의 추억을 남기겠습니다.
6. 여행 중 흔적을 남기지 않고 쓰레기를 가방에 되담아 오겠습니다.
7. 나무나 돌에 무언가를 새기거나 돌을 쌓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자동차 경적을 자제하겠습니다.
9. 내가 방문하는 모든 장소를 아끼고 배려하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을 ESG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음. 같은 해 12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ESG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음.<sup>9)</sup>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 ESG 활용한 관광 분야 활성화 정책 수립

- ESG 지표를 활용한 관광 분야 활성화 정책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녹색 인증 프로그램, 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ESG 지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

-**(지속 가능한 관광지 개발)** :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생태 관광지와 녹색 관광지 개발.

-**(친환경 숙박 및 음식점 인증제도)** : 착한 가게를 지정, 운영하는 것처럼 에너지 친환경 숙박 시설 지원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여 친환경 숙박 및 음식점 장려

-**(포용적 관광 프로그램)**: 한옥마을을 비롯해 전주 주요 관광지를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하고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불편함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범죄 예방,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 등

9) 한국관광공사, <미국 관광분야 ESG 현황 조사>, (2022)

## 콘텐츠 산업도시 육성 전략

### □ 출장개요

- 일 시 : 2024. 05. 25.(토) ~ 2024. 06. 04.(화)
- 방문국가 : 미국(뉴욕,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 방문목적
  -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글로벌 영화시설 벤치마킹
  -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 및 문화시설 등 성공 사례분석
- 작 성 자 : 장 병 익

### □ 현 황

- 후백제의 도읍지이자 조선 왕실의 본향인 우리시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지, 한옥, 한식, 한복 등 K-푸드와 K-컬처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도시이지만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지고도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콘텐츠 중심의 산업 재편에 새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포켓몬 헬로키타미키마우스스타워즈슈퍼마리오 등 슈퍼 IP(지적재산권)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일회성 성공과 굿즈 위주로 장기적인 IP 육성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 시의 경우는 IP 육성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임.

## □ 출장 세부내용

-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어트랙션과 쇼를 즐길 수 있는 투어 관광상품을 경험하고, 다양한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놀이공원을 만든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함.
- 구도심 재생을 위해 설치된 라스베이거스의 코카콜라 숭에서는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에서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가능성을 분석함.
- 세계적인 프로 야구 구단인 LA 다저스를 방문, 경기장 내부와 클럽하우스, 선수 라운지 등을 살펴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였고, 유니폼, 모자, 기념품 등 구단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상품을 분석, LA 다저스가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지 살펴봄.



##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

-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다양한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테마파크, 영화,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대표적인 IP로는 공룡 테마의 어드벤처 영화 시리즈인 <주라기 공원> 시리즈,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한 액션 영화 시리즈인 <분노의 질주> 시리즈, 그리고 마법사 소년 해리 포터의 이야기를 담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으며, 이 외에도 <미니언즈>, <트랜스포머>, <슈퍼배드> 등 다양한 인기 작품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음.
- 라스베이거스의 코카콜라 슱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체험 매장으로, 방문객들이 “Coca-Cola” 브랜드의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임. 이 매장에서는 티셔츠, 모자, 병따개, 장난감 등 다양한 코카콜라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코카콜라 맛 체험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전 세계 다양한 코카콜라 제품들을 맛볼 수 있음.
- 세계적인 프로 야구 구단인 LA 다저스는 다양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여 자사의 브랜드와 관련된 여러 자산을 보호하고 있음. 다저스는 팬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모자, 유니폼, 액세서리 등 IP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는 팬들에게 인기가 많아 꾸준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시, 콘텐츠 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적 가치가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 이를 위해 전주시는 기초 인프라 확충과 창작자 및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행정에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전문가 초빙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과 마케팅 지원 정책이 필요함. 전주시는 콘텐츠 제작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시민 참여를 유도해야 함. 콘텐츠 공모전과 주민 참여형 웹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1. 외교부\_미국\_약항정보(24.04.16), [https://www.mofagokr/www/mofic/m\\_348/viewcb?seq=43](https://www.mofagokr/www/mofic/m_348/viewcb?seq=43)
2. <https://www.ttlnews.com/article/trip/15175>
3. 삼성경제연구소(2004년).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166088?sid=104>
5. 한국관광공사. (2022). 미국 관광분야 ESG 현황 조사
6. 문화체육관광부. (2023). 영상산업 도약 전략
7. 한국관광공사.(2022). 야간관광 실태조사 보고서
8. (사)한국자원봉사문화. (2019).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성화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9. 박민경(2021).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미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현황